

## 朴善長의 教育者的 面貌와 그 文學世界 考察

황 병 익\*

### 차 례

- |  |                                  |
|--|----------------------------------|
| I. 들어가기                                | III. 향촌 활동과 혼민의 실천, 그리고<br><혼민가> |
| II. 엄중한 도덕성 · 修己 우선주의 · 벼<br>슬에 대한 무관심 | IV. 나오기                          |

### I. 들어가기

인간의 세계관이나 의식세계는 주로 가정에서의 교육이나 사제간의 교육,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 일생동안 가지는 교유 관계,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기반들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세계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일생동안 남긴 모든 기록과 독서 경향,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평가, 나아가 역사기록까지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水西 朴善長(1556~1617)의 삶의 궤적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은 그의 후손들에 의해 간행된 4권 2책의 《수서문집》<sup>1)</sup>과 그와 교유한 사람들의 문집<sup>2)</sup>에 간헐적으로 나타나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朴善長, 《水西先生文集》(朴承勳 外譯, 大譜社, 1996).

있는 것들이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각도로 진행되어 그의 삶과 문학의 입체적 고찰을 위한 시발점을 마련해 주었다.<sup>3)</sup> 그러나 이 연구들은 《수서집》에 대한 서지적 연구와 〈오륜가〉, 그리고 작가의 전기적 사실에 국한되어 진행됨으로써 수서의 선비로서의 태도와 향촌 활동을 다각적으로 고찰하는데 미진했다는 감이 없지 않다.

수서의 삶과 그 의식세계를 단지 몇몇 문집에 의지하여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수서에 대한 작가론이 이 빈약한 자료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 또한 당면한 현실이다. 본고는 이 몇 안되는 자료들을 통하여 그의 삶에 대한 일관된 질서를 찾고, 그 과정 속에서 작가의 감정이나 정서, 삶의 태도를 발견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본고는 먼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서의 작품 연보를 작성하고, 그의 삶의 궤적에 따른 의식 세계의 추이를 살핀다는 작가론의 원론적 방법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다.

## II. 엄중한 도덕성 · 修己 우선주의 · 벼슬에 대한 무관심

수서는 평생동안 엄격한 도덕주의를 고수했다. 그 도덕주의는 水西가 어린 나이(4세, 1559년)에 부친을 여의고 그 교육을 어머니가 전담하면서부터 시작된 듯하다. 즉 아들에 대한 정열과 至誠의 결집을 의미<sup>4)</sup>하는 수서 어머니의 '三遷之教'가 그의 엄중한 도덕성을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부친의 상실로 인해 수서의 어머니는 자애로운 어머니 역할과 인성·도덕 교육을 전담하는 엄격한 아버지의 몫을 모두 감당해 내야만 했다. 이에 대한 수서 어머니의 고심은 매우 커던 것으로 보인다. 울진의 외가에 水西를 맡겨 교육한 일

2) 이에 대해 본고는 수서의 스승이었던 三松(堂) 南夢繁의 《三松先生遺(逸)稿》單卷에 의존한다.

3) 林仙默, 〈水西와 五倫歌〉(《국문학논집》 2, 단국대, 1968), 《時調詩學敘說》(청자각, 1974)에 재수록; 李相寶, 〈水西의 五倫歌 研究〉(《명대논문집》 9, 명지대, 1976), 《時調文學研究》(국어국문학회 편, 1990)에 재수록; 宋政憲, 〈朴善長의 五倫歌와 薄薄田歌 小考〉(《東泉趙建相先生古稀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 1989); 《奉化文化》5號·通卷 9輯(봉화문화원, 1997).

4) 〈孟母三遷之教〉(《中國故事》, 明文堂, 1972), p.97 참조.

(1562년)이나 꿈에 부친이 나타나 봉화 꽃내[花川]로 옮겨 가서 그를 가르칠 것을 일러준 일 등은 水西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빈자리에 대해 얼마나 고심했던가를 말해주는 사실들이라 하겠다.

어머니의 고민과 더불어 그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스승인 三松 南夢鯨(1528~1591)였다. 일찍 아버지를 여읜 水西는 십 세 이후에는 그에게 수학했다. 남동오는 經史를 두루 읽고, 性理를 연구하여 후진에게 적극적인 가르침을 펴는 퇴계학통을 이은 성리학자였다.<sup>5)</sup> 수서에게 그의 존재는 엄격한 아버지의 위치를 대신하는 존재였을 것이다.<sup>6)</sup>

이와 같은 어머니의 삼천지교와 엄격한 스승의 존재는 그가 도덕적인 삶을 중시하고 평생동안 그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계기<sup>7)</sup>가 되어 그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과 농담과 거만한 말,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책읽기에만 전념하였다.<sup>8)</sup>”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기록이 水西의 삶에 대한 문집 편찬자의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이 아동기 뿐만 아니라 그의 전 생애를 거쳐 나타나는 것이라면 엄중한 도덕성은 그의 생애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다.

- 
- 5) “南夢鯨 字景祥 號三松 英陽人 居榮川 生嘉靖戊子 中萬曆癸酉司馬 資稟高邁 器度宏偉 博覽經史 窺探義理 訓誨後進 多有成就 先生嘗贈 剛州北里 南夫子 講榻陵莪 七十徒 退溪先生 示中誠望三益 外慕忘一芥之詩”(〈囑臯(朴承任)先生門人錄〉), “南進士夢鯨… 為性軒昂不羣 家貧好讀書 研究性理 為世所推重 享年六十四而終 公力教後生 數邑士子 多所成就…”(〈李煥沙汝馥所撰〉) 《三松先生遺稿》單의 〈師友錄〉(p.28).
- 6) 그가 지은 스승에의 제문에 “돌아보면 나는 어릴때부터 (그의) 문하에 의탁하였다. (그는 나를)이끌어 주며 권장해 주어서 잠에서 깨어나게 불러주시고, 얼굴을 대하지 않고 명령하시니 이것이 진정한 정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네.”라는 대목이 있다. 이는 그가 삼송에게서 받은 영향의 지대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 7) 스스로 학문에 뜻을 가지며 말과 문장에 유의할 뿐 아니라 경서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여 반드시 몸으로써 실천하였으니 거의가 밖으로는 삼송선생의 올바른 가르침과 안으로는 어머니의 사람으로서의 몸가짐과 삼가서 행동하여야 할 등 여러 가지 비유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있게 교육한 결과이다. 朴善長, 앞의 책, p.61. 水西는 밖으로는 삼송선생에게서 행실에 대한 큰 법도를 배웠고, 안으로는 慈堂 주씨에게서 몸가짐과 행동할 때의 삼가할 점 등을 자세히 교육받았다. 朴齊顏, 〈水西 家狀〉(박선장, 앞의 책), p.427 참조.
- 8) “先生自知讀書未嘗隨兒嬉戲慢辭廢語不出於口專意讀書不待師門呵督”, <수서선생 연보>, 앞의 책, p.57 참조.

다음으로 그의 생애를 특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철저한 자기 수양이다. 그는 평생 동안 《心經》과 《大學》 등의 경서를 지속적으로 탐구했고, 그에 대한 느낌을 시로 표현했다. 즉 경서를 자기 수양의 기초로 삼아 내적 의식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경서를 읽고, 그에 대한 느낌을 적는 것은 그의 전 생애를 거쳐 빼놓을 수 없는 행보가 되고 있다. 문집에 드러나는 그 흔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1572년 〈讀心經小學 有感作詩〉
- ② 1580년 《心經》을 읽다.
- ③ 1588년 讀心經, 늘 이로써 힘을 부돋우다.
- ④ 1607년 《禮經》· 《心經》· 《性理》 등을 읽었다. 선생은 스스로 학문에 뜻을 갖고, 특히 성리서를 많이 읽었으며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한탄하였다. 과거에 급제한 후에도 마음을 기울여 연구하였으며, 시간이 부족함을 아쉬워 하였다.<sup>9)</sup> 또 靜養에 관한 사를 짓고, 自警箴을 지었다.
- ⑤ 1610년 《小學朱子書》를 읽음 어떤 사람이 묻기를 “자네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책을 읽는가?”하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벼슬을 하면 부지런히 일하기를 힘써야 하고 집에 있으면 책읽기를 하는 것이 내 일인데 이것 이 외에 내가 어디에 힘을 쓰겠는가”하였다.<sup>10)</sup>
- ⑥ 1611년 〈讀心經有感作自悼詩〉, 〈有自警辭〉 《심경》을 읽고 느낀 바가 있어 자신에 대한 슬픈 마음을 시로 나타내었다. 스스로 쓰기를 ‘가난을 참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나 〈居易俟命〉으로 위안을 삼고 스스로 맹서하는 글을 짓는다.’고 하다.<sup>11)</sup>
- ⑦ 1616년 《心經》을 읽다.

이상의 기록들을 통해 수시가 평생동안 경서 탐독에 심취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心經》에의 심취가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그는 《심경》을 평생토록 탐독하면서 자기 수양에 철저했고, 수시로 심경을 비롯한 여타의 경서에 대한 느낌을 적고<sup>12)</sup>, 〈自警〉의 글(〈自警箴〉)로 승화시키려 했다. 水西에게 끊임없는 독서와 그를 통한 자기 성찰은 꽃꽂한 선비로서의

9) 박선장, 앞의 책, p.75.

10) 박선장, 앞의 책, p.78.

11) 박선장, 앞의 책, p.79.

12) 〈讀小學〉· 〈讀曲禮〉· 〈讀心經〉의 有感을 적은 글이 그것이다. 이같은 자기 수양 과정은 스스로의 경계에 그치지 않고 〈十勿箴〉, 〈오륜가〉 등으로 형상화 되기도 하고, 배에서 《대학》을 강론(〈舟中講大學〉)하고 鄉中에서 후학을 가르는 가르침으로 전이되기도 했다.

지조를 유지하고 그 도덕성을 키워 나가는 하나의 자기 연마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6세기 중반 이후 이황을 중심으로 한 영남 사람들은 《심경》을 중시하고 이에 관한 연구도 깊이 하여 많은 저술을 내놓았는데, 이는 조선성리학이 당시 修養論의 心學으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sup>13)</sup> 《심경》은 당시 학자들에게 心功夫, 곧 存養과 省察의 經學으로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책이었다. 퇴계는 “心은 萬事의 근본이 되고, 性은 萬善의 근원”이니 “풀어진 마음을 다잡아 거두는 것이 학문의 출발점”이라 하여 심학을 매우 중시했다.<sup>14)</sup> 그 결과 퇴계는 평생에 마음을 다스리는 《心經》을 높여 믿기를 四子(논어·맹자·대학·중庸)와 近思錄 아래 두지 않았고, 매양 그 글을 읽다가 그 책 끝에 가서 한 번도 그 사이에 의심을 두지 않은 적이 없다<sup>15)</sup>고 한다. 퇴계의 태도가 이와 같으니 그의 문인들에게도 《심경》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16)</sup> 수서가 《심경》에 심취한 것도 영남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학문적 분위기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서의 삶 속에서 어머니와 스승의 가르침이란 직접 체험과 경서, 특히 《심경》의 탐독이라는 간접 체험이 그에게 엄중한 도덕성, 지속적 자기 성찰 의지를 가지게 했다면, 그로 하여금 선비의 〈出處〉에 대한 의식을 형성시킨 것은 퇴계의 학풍을 이은 스승 남몽오의 가르침과 퇴계문집의 탐독을 통해 자연스레 흡수된 퇴계식 〈출처〉관의 영향 때문이라 보여진다. 수서는 오래도록 퇴계문집을 탐독<sup>17)</sup>하고, 퇴계 文人인 그의 스승 三松·삼송의 스승인 曠臯<sup>18)</sup>를

13) 김윤제, 〈朝鮮 前期 心經의 이해와 보급〉(《한국문화》,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6), pp.183~184 참조.

14) “…聞之心爲萬事之本性是萬善之原故先儒論學必以收放心養德性爲最初下水處…” 《退溪文集》(退溪學叢書編刊委員會 編, 1990) 권16, 〈答奇明彥〉.

15) “故平生 尊信此書亦不在四子近思錄之下矣 及其每讀至篇末也 又未嘗不致疑於其間…”, 〈心經後論〉(《퇴계집》 참조)

16) 퇴계가 심경을 중시한 아래로 語意와 正心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이론이 보급되었다. 石堂傳統文化研究院, 《國譯心經》(동아대출판부, 1987), p.171.

17) 1610년(55세) 퇴계선생 聖學十圖書를 읽음, 그의 만년인 1613년(58세)에도 퇴도 선생 문집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평생동안 퇴계를 내면의 스승으로 삼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 三松 南夢鰲와, 曠臯 朴承任?: 퇴계의 문인으로 그의 학풍을 계승한 사람들이

통해 퇴계 학풍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므로 그가 퇴계를 私淑했다는 말은 그리 어색하지 않게 적용될 수 있다.<sup>19)</sup>

그러면 수서가 스승을 통한 간접적 영향과 퇴계 문집의 탐독을 통해 가지게 된 <출처>에 대한 시각은 어떠하였을까.

먼저 퇴계의 <出處> 의식은 다음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도정절집 <sup>20)</sup> 중에 실린 음주 아십수를 화답하다>	<和陶集飲酒二十首·其五>
나는 애당초에 시골사람 기질로서	我本山野質
고요함을 사랑하고 지껄임을 싫어했네	愛靜不愛喧
지껄임을 좋아함은 실로 옳지 않겠지만	愛喧固不可
고요함을 사랑함도 또하나의 외진 일일세 …	愛靜亦一偏 … <sup>21)</sup>

퇴계는 항상 사퇴하고 물러서려 하였고, 벼슬이 높을수록 그와 같은 경향은 더욱 짙어졌다.<sup>22)</sup> 비록 임금의 소명을 거역할 수 없어 벼슬살이를 했지만 늘

다. 퇴계의 제자록에 따르면 “남옹오는 「도산」의 터를 잡을 때 따라가니 퇴계가 시 〈溪上始定居〉를 지어보내 주었고, 박승임은 ‘퇴계에게 〈挽詩〉를 지어 준’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퇴계평전』(경상북도, 1987), pp.358~362 참조.

19) 수서가 퇴계와 이언적을 공격했던 정인홍을 비판한 1600년의 「有假鶴」이나 1605년 4월에 晦齋李先生의 伸冤疏를 쓴 것 또한 퇴계를 私淑한 수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짜학 새중에는 학이란 새가 있으니/눈동자는 별빛같이 멀리 비치고/한번 울면 소리가 하늘까지 들리는데/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임을 알았네(假鶴:有烏鵲爲名 星眸光遠射 一鳴聲聞天 聞者焉知假)> [박선장, 앞의 책, p.94.] 정인홍은 명성이 자자하였다. 호를 野鶴이라 하다. 사헌부의 벼슬아치들을 거느리고 本郡을 지나갔다. 선생은 한번 보고 그 사람됨을 알고 시를 지어 풍자하였다. [박선장, 앞의 책, p.71.] 정인홍은 당시 과격한 처사로 인해 소복과 남인과 서인의 적이 되었다. 사람으로는 퇴계·회재의 제자들과 적이 되었고, 이념적으로는 사대주의자와 주자학파의 적이 되었다. 이 이화, 『인물한국사』(한길사, 1988), p.107.

20) 도연명의 시문집이니, 정절은 그의 호다.

21) 《退溪先生文集》, 卷1, 詩(앞의 책), p.143.

22) 李東英, 〈李退溪의 文學觀〉(《儒家文學觀과 詩世界》, 부산대출판부, 1997), p.95  
참조;(퇴계)선생이 일찍이 말하기를 “전에는 임금의 명령을 듣기만 하면 곧 달려갔고, 뒤에는 부르시면 반드시 사양하였으며, 가더라도 구태여 머무르지 않았다. 자리가 낮으면 책임이 가벼우므로 한 번 나가 볼 수도 있지만, 벼슬이 높으면 책임이 큰데 어찌 가벼이 나아갈 수 있겠는가?”하였다. 〈出處〉, 《퇴계집》연행록(III) 참조.

귀거래를 희망했다.<sup>23)</sup> 물론 퇴계 문집의 곳곳에 대두되는 이같은 의지가 오로지 학문에 침잠하고픈 욕구나 천석고황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당시의 시대적 정황으로 볼 때 그가 귀거래를 추구하게 된 데에는 政爭에서 벗어나고픈 욕구도 어느 정도 가미되었을 것이다.<sup>24)</sup> 그러나 실록의 기록이나 그와 교유한 사람들의 여러 글에는 퇴계가 가진 귀거래 욕구가 원래적인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율곡도 “(퇴계) 선생은 젊어서부터 도에 뜻을 두어 늙어서는 더욱 학문을 좋아하고, 벼슬살이를 즐기지 않아 예안에 물러가 살았다. 그래서 그 때 사람들은 선생을 우러러보기를 마치 태산이나 북두성처럼 했었다.<sup>25)</sup>”라고 말하고 있다. 율곡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퇴계가 벼슬보다는 학문에 뜻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퇴계가 임금의 부름을 20여 차례나 거절한 사실이나 사직원만 내고 짐을 꾸렸다가 벌을 받은 사실, 또 을사사화 후에 낙향하여 낙동강 상류의 兔溪를 퇴계로 고쳐 스스로의 호로 삼은 사실 등<sup>26)</sup>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퇴계의 성향들은 그의 문인인 磻臤와 三松을 통해, 또 수서의 독서행위를 통해 수서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수서 또한 벼슬을 통한 '치인의 도'보다는 '수기의 도'를 우선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수서는 퇴계가 지녔던 내면적 욕구를 별다른 현실적 어려움 없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길을 걸었던 것이다. 《수서집》에는 수서가 벼슬살이보다는 수기에 치중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 여러 곳에 보인다.

23) 이상은, 『퇴계의 생애와 학문』(서문당, 1973), p.45 참조.

24) 이상은은 퇴계가 명종조에 벼슬하면서 시종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항상 관직을 사양하고 野로 돌아가려 한 원인은 첫째, 사람을 적대시하는 문정왕후와 윤원형 중심의 외척정치의 전횡때문이고, 둘째, 학문에 대한 욕구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상은, 앞의 책, p.57 참조.

25) “先生自少志道 晚尤好學 不樂仕宦 退居于禮安 時人仰之如泰山北斗… -李珥”, 〈出處〉(《퇴계집》言行錄(三)).

26) 정옥자, 퇴계 이황(〈새로 쓰는 선비론〉(4), 동아일보 1997.10.2일자), 11면 참조; 퇴계는 49세 때부터 사업장을 옮리기 시작하여 70세에 이르기까지 「啓」의 형식으로 14회, 「狀」의 형식으로 36회, 「疏」의 형식으로 3회 등 53회에 걸쳐 사업의 의사를 표시한다. 이상은, 앞의 책, pp.49~51 참조.

① 벼슬을 하였으나 그 길에 마음이 없어서 생각한 대로 벼슬을 그만두고  
도닦기에만 전념하였다.<sup>27)</sup> ② 그는 벼슬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sup>28)</sup>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이 꿈꾸는 성리학적 이상사회의 구현이 이루어지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 성리학적 질서를 보급하는 한편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다.<sup>29)</sup> 그러나 수서가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꺼려한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것과도 성격을 달리한다. 그는 근본적으로 벼슬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단지 향촌에 살면서 스스로를 닦고, 여력이 있다면 어린 선비들을 깨우치고 가르쳐 향촌의 질서를 유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가 차남인 堉을 경계하는 내용의 글에도 드러난다.

벼슬을 하고 돌아온 한을 경계함	<埠釋褐而來作此以爲戒>
머리에는 검은 사모를 쓰고 허리에는	頭上烏紗帽 腰間黑角帶
검은 각대를 둘렀네	
임금의 은혜가 온 몸에 둘렀으니	君恩遍一身 雨露流滂霈
그 혜택을 크게 받았네	
옛날에 네가 학문에 뜻들때 바다에 들어가	曩汝志學初 入海探瀛貝
조개알을 찾는 것 같았다. …	… …
사람들은 벼슬과 영화를 좋다고 하고	人言好爵榮 好爵斯已泰
벼슬하기를 이처럼 좋아하네. …	… …
사람들의 마음은 물질을 따라 움직여	人心從物遷 位不期驕汰
벼슬자리는 교만하면 미끄러지네 …	… …
입신양명하는 것이 어찌 귀하지 않으리요만	揚名豈不貴 撞鍾瑣力最
종을 치는 힘은 미미하네	
나라의 은혜는 진실로 보답함이 적었고	鴻恩倘少報 卜退焉用蔡 <sup>30)</sup>
물려나려할 때 이찌 거북점을 차리오. …	

결국 수서는 물질에 지배되고,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쉬운 벼슬살이에 대해

27) 權正宅, 〈移建時還安告由文〉(박선장, 앞의 책), p.377.

28) 李興門, 〈水西 祭文〉(박선장, 앞의 책), p.371.

29) 김향수, 〈조선 전기의 성리학〉(강만길 외 편, 『한국사』8 중세사회의 발전(2), 한길사, 1995), p.258 참조.

30) 박선장, 앞의 책, pp.189~192.

회의적이었다 할 수 있다. 또 그는 치인의 도를 실현하여 백성들의 안락을 도모해야 하는 원래의 길을 도외시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는 자기 욕심만으로 벼슬살이에 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해야만 하는 정치 현실을 우려하고, 정작 중요한 나라의 은혜에 다 보답하지 못하는 안일함과 태만함을 아쉬워 하고 있다. 水西는 '백성들의 우두머리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이 선비이고, 선비는 '궁하게 살면서도 그 의리를 잊지 아니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능히 그 올바름을 지켜야 한다.'고 선비의 임무를 역설한다.<sup>31)</sup>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선비의 도리를 궁극적인 '治人의 場'이라 할만한 官界에 나아가 펼치는 일에는 매우 무관심했다. 그래서 그는 수년간의 벼슬생활을 제외하고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는다. 그 벼슬도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효도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의 정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606년 <七月除成均館典籍> 선생은 아들 한이 과거에 급제한 후 과거보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이 비록 급제하였으나 어찌 네가 급제하기만 하겠느냐고?”라고 말씀하시니 선생은 부득이 과거를 보아 벼슬길에 나아갔다.<sup>32)</sup>

그가 과거를 보아 벼슬에 나아갈 때 그의 나이 벌써 51세<sup>33)</sup>였다. 이때에 이르도록 과거시험 한 번 보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그가 벼슬살이에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오로지 선비가 그 도를 이룩함에 있어 '그 바탕을 기르지 아니하고 급하게 일을 하는 것을 경계'하였고, 반드시 뜻을 세운 뒤에 일을 도모해야 한다<sup>34)</sup>고 역설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水西가 벼슬을 통한 治人的 道보다는 스스로의 덕성 함양, 즉 修己의 道를 우선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으면서 스스

31) <龜灣書院上樸文>, 박선장, 앞의 책, p.326.

32) 박선장, 앞의 책, p.74.

33) 수서는 1606년(51세) 과거에 응시하여 增廣別試丙科에 급제하였다. 그 해 7월에 成均館典籍에 임명된다. 그 후 1609년에 禮安縣監, 1614년에 廉尚道都事에 제수된다.

34) <龜灣書院上樸文>, 박선장, 앞의 책, p.326.

로를 다잡아 나가곤 했다.

자신을 가르치며 경계하는 글(〈自警箴〉)

성질의 편협한 곳을 이기기 어렵고, 그를 극복함이 가장 어려워 스스로 경계하여 가르치는 글을 쓴다.<sup>35)</sup>

스스로 맹서하여 경계하는 글(〈自誓箴〉)

가난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니 '居·易·俟·命'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런 후에야 편안하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스스로를 맹서한다.<sup>36)</sup>

위의 예들에서 우리는 수서가 '성질의 편협함'과 '가난한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혼적을 선연하게 볼 수 있다. 성질의 편협함이란 인간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그를 극복하기 어려워 그를 경계하고자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욕망을 잘 절제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다. 또 가난이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로 떠오른다. 그러나 가난이란 물질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居·易·俟·命'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아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위의 〈自警箴〉이나 〈自誓箴〉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어려움들을 스스로의 마음과 자세를 다듬어 극복해 내는 수서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글이다.<sup>37)</sup> 비록 수서가 스스로에게 이르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箴〉은 어느새 백성과 향촌의 선비들을 계도하는 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벼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생겨나는 가난이라는 불편한 굴레를 스스로 극복해 내며 자신의 욕구를 다스려 나갔던 것이다.

35) 박선장, 앞의 책, p.258.

36) 박선장, 앞의 책, p.259.

37) 이와 같은 수서의 수양태도는 퇴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퇴계는 59세 때 湯 임금 이후 지은 〈箴銘〉 등 81편을 베껴서 《古鏡重磨方》을 편찬하여, 수양법에 진요한 자료로 삼았다. 65세 때 그의 서재인 완탁재의 벽에 〈敬齋箴圖〉·〈白鹿洞規圖〉·〈明堂室語〉 등 箴規를 써 붙이고, 수양에 전념했던 일이나, 《성학십도》를 편찬하여 임금에게 수양의 자료로 삼도록 하였던 일들이 퇴계가 얼마나 수양에 힘썼던가를 보여준다. 금장태, 《퇴계의 삶과 철학》(서울대출판부, 1998), p.58 참조.

### III. 향촌 활동과 훈민의 실천, 그리고 <훈민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水西는 전 생애를 거쳐 끊임없이 經書를 탐독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수양에 전념했다. 자기 수양에는 修己·治人의 道가 큰 大綱을 이룬다. 수기와 치인의 목적은 지선한 삶의 실현인데 이 가운데 수기는 공부하는 사람 자신의 지선한 삶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치인은 가정과 국가, 나아가 천하 사람들의 지선한 삶을 목표로 한다.<sup>38)</sup> 한국의 성리학은 목은 이후 권근, 이언적 등으로 이어지다가 퇴계 이황에 이르러 완성되는 철저한 수양철학의 계열과 조광조, 이언적으로 이어지다가 율곡 이이에 의해 완성되는 강렬한 정치적 실천운동의 계열로 분화되어 전개된다.<sup>39)</sup> 그러나 사대부는 기본적으로 在朝者的 성격과 在野者的 성격을 공유하고 있고, 그들의 조화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sup>40)</sup> 그러므로 사대부에게 있어 수기와 치인의 도는 결코 명확히 구분될 수 없는 양면이다. 이는 수서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는 평생을 수기에 전념하였지만 그를 통한 깨우침을 혼자서 가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그 깨우침의 공유가 일반의 사대부들과 같이 벼슬을 통한 '治人의 場'에로까지 이어진 것도 아니다. 다만 그는 스스로 터득하여 몸에 배인 도덕적 교훈을 향촌 사람을 다스리는 윤리로 확장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행보는 그의 짧은 벼슬생활기에 시작되어 永眠하는 시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술한 바 있듯이 수기를 치인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것은 사대부의 기본적 성격이다. 또, 벼슬생활을 즐겨하지 않고 향촌에서 가르침을 베푸는 교육자적인 삶은 수서의 스승인 삼송을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의 새삼스러울 것 없는 형태였던 것이다.<sup>41)</sup> 즉 산림에 은거하면서 후진을 양성하는

38) 李光虎, <理의 自發性과 인간의 修養문제> -이퇴계의 철학에 있어서(《大東文化研究》2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0), p.193.

39) 李基東, <韓國에서의 性理學의 受容과 展開> (《대동문화연구》28, 대동문화연구원, 1993), p.261.

40) 이우성, <이조 사대부의 기본 성격>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비평사, 1982), p.217 참조.

41) “…累(屢)魁鄉解名聲籍甚萬曆癸酉中進士以訓誨後學爲任爲築一書舍數郡蒙士塋集各引其才而教導先之以孝悌次之以文藝至於成就者甚衆弟子嘗爲設會於花川…”((《三松先生遺稿》中 <三松堂南公遺稿> (p.37.)); “三松…交遊如金鶴峰先生常以儒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겨<sup>42)</sup> 곳곳에서 모인 향촌의 선비들을 교육한 삼송 선생의 삶이 수서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라 짐작된다. 수서가 거주하던 꽃내 마을에 학문이나 예술 등에 관한 일이 있으면 그 소임은 수서에게 맡겨지게 되었고<sup>43)</sup>, 이 과정에서 그가 평생 동안 익힌 학문과 수기를 통한 깨달음은 향촌의 선비들에게 전파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조선왕조는 건국초부터 유교 중심의 정책을 써서, 고려의 寺院을 대신하여 書齋·書堂·精舍·元賢祠·鄉賢祠 등을 장려하였다.<sup>44)</sup> 수서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각 군현마다 향교가 있었고, 중앙에 최고 국학으로서의 성균관이 있었지만 퇴계를 중심한 사람들은 과거와 연관된 이 두 기관보다는 출세주의·공리주의를 떠나 순수한 학문과 수양으로 새로운 인간 형성이 가능한 서원을 선호했다.<sup>45)</sup> 수서가 洞主로 활약<sup>46)</sup>했던 伊山書院은 여타의 서원들처럼 祀賢의 기능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書齋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sup>47)</sup> 즉, 사람들간의 講道를 더욱 중요한 기능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수서는 이산서원을 이끌면서 학문에 충실한 사람들을 양성하였다. 그가 서원의 洞主를 맡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육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수서가 후진양성을 중시한 혼적은 문집의 곳곳에 드러난다.

- 1) 그는 벼슬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후학들을 가르칠 것을 생각하고 학당을 세울 일에 열중하여 계획을 세우고 경영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계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과 선비들이 방황하는 것을 경계하며 스스로 노력

將目之世無以薦進者乃聚學徒作書齋訓誨不倦則隣邑之間風負笈者亦多焉…”(《三松先生遺稿》中 朴璥 〈義穀序抄〉(p.1.)) 참조.

- 42) “…不樂進取 既舉進士 隱居教授 以成就後進爲己任…”(《三松先生遺稿》中 〈晉陽鄭宗魯序〉(p.1.))
- 43) “朴善長…自少勤學 有志操 鄉中若有文事 則必屬公焉 五十後 與余同乙巳及第 除成均館典籍 出爲禮安縣監及本道都事而終 年六十二 堂有百歲老母 哀哉” 李汝馥, 『炊沙集』師友錄.(李相寶의 앞의 글, p.367에서 원문 재인용)
- 44) 孫仁鉉, 《韓國教育文化의 理解》(培英社, 1986), p.59.
- 45) 이우성, 〈이퇴계와 서원창설 운동〉(앞의 책), p.285 참조.
- 46) 水西는 伊山書院의 洞主로 활동했다. 박선장, 앞의 책, p.83.
- 47) “吾鄉先正可祠於學者未有定論於書院之制斯爲未備欲姑以書齋名之何如”(《퇴계전서》42, 「이산서원기」) 이산서원은 명종 14년(1559년) 건립되었다.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집문당, 1997), p.68 참조.

하도록 하였고, 인심이 불량해지는 것을 노래를 지어 선도하였으니 효도와 충성과 공경과 믿음을 가르쳐…<sup>48)</sup>

2) 재상이 먼저 힘써야 할 것은 인재에 있다(〈宰相先務在人材〉)

대개 들으면 재상 한 사람이 묘당에 앉았으니 백가지 그 책임이 있네. … 자체가 많아도 편중해서는 안되고, 먼저 힘써야 할 중요한 것이 인재이다. 원래 천하는 지극히 넓어 망망한 아홉곳의 땅끌이고 많은 것은 인민이며, 번창하여 억은 안되어도 임금은 혼자 다스리기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를 임명하여 일을 나누어 맡기니 모두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밖은 전통을 쌓아, 신신을 닦고 … 하늘에서 내리는 재해를 항상 생각하여야 한다. … 후직 이기 가 아니면 백곡이 풍성하지 못하고 사도가 설이 아니면 오교(오륜)를 폐지 못했을 것<sup>49)</sup>이네….

3) 1612년 〈十一月製書堂上樸文〉 선생은 항상 동네의 어린(젊은) 선비들을 가르칠 곳이 없음을 아쉬워하여 권도운 호신 금송음 복고 생원 이홍문 제공과 상의하여 강당을 세워 수학하고 가르치기로 하고 귀만에 세울 것을 결정하고, 모든 계획을 세웠다.<sup>50)</sup>

4) …오직 도와 지혜를 길러서 마을의 어린이들을 봉황과 같이 만들고 저 합이네…이 서당에 입학하여 충성과 믿음과 효도와 공경을 위주로 하고 예의와 염치를 익히며 부지런히 행하여 마을이 현으로 승격되고… 51).

5) 아이를 기르는 침

養蒙齋

아이를 기르면 끝내는 이를 수 있고

蒙養須端能立脚

자네들을 알리기 위하여 두어 칸의 집을 마련했네

知君爲闢數間齋

어린 세들이 자리를 옮겨 가며 수없이 나는 것을

要看黃口遷飛數

자세히 보게

此樂何如君子懷<sup>52)</sup>

이 즐거움이 어떠한가 군자의 회포가 아닌가

이상 1)~5)는 수서가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또 그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그는 '인재는 올바른 마음을 근본으로 하여 학문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닦아서 도를 이루고 덕을 세운 연후에야 길러지는 것'이라 하고, 그를 위해 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sup>53)</sup> 또, 임란 이후 상해가는

48) 李興門, 〈水西 祭文〉(박선장, 앞의 책), p.371.

49) “…后稷非棄百穀不繁司徒非契五教不敷…”, ‘后稷’은 순임금때 농사를 맡아 다스리던 벼슬이고, ‘棄’는 후직의 벼슬을 맡았던 사람이다. 또 ‘司徒’는 교육을 맡아 다스리는 벼슬이고 ‘契’은 그를 맡았던 자이다.

50) 박선장, 앞의 책, p.79.

51) “…顯惟道智一村駒鳳凰…” 〈龜灣書院上樸文〉, 박선장, 앞의 책, p.314, p.317, p.320.

52) 박선장, 앞의 책, pp.123~124.

53) 〈問教養人材〉, 박선장, 앞의 책, pp.337~338 참조. 이 글은 그의 나이 50세 때 임금에게 올린 글이다.

풍속을 슬퍼하였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스로 사모하는 옛풍속을 가르치고자 했다. 그로써 동네 사람들이 더불어 도를 회복하게 하였고, 선대의 성현들이 남긴 교훈을 들어 가르치기에 힘썼다.<sup>54)</sup> 스스로 향약 활동을 통해 덕업을 권하고, 과실을 규제하게 하면서 유교적 도덕의 확산을 꾀했고,<sup>55)</sup> 이산 서원과 귀만서원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 서원은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는 방법보다는 인간과 우주의 근본을 파헤쳐 본다는 순수한 유교철학을 주로 교육하여 유교 학문 심화의 장이 되었다.<sup>56)</sup> 즉, 16·7세기 사족들은 향약과 서원을 통해 스스로의 거향관을 내면화하면서 사족 중심의 향촌사회 구조를 이끌어 나간 것이다.

수서가 동계 서원의 洞主로 활약하면서 고친 洞楔約文에는 忠·孝·義·敬·和睦의 덕목이 중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실천 덕목들과 <하지 말아야 할 열가지를 경계하는 글> (<十勿箴>)<sup>57)</sup>에 나타나는 계도적 윤리는 그의 <오륜가>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평범한 선비로서의 삶이 가능한 생애 속에서, 벼슬보다는 자연과 함께 하는 '선비'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실천했던 수서에게 학문탐구는 벼슬살이를 염두에 둔 연마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수양을 위한 길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갈고 닦은 학문세계를 후진 양성에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적극성을 보인다.

수서가 후학의 양성에 본격적으로 뜻을 두기 시작한 것은 50이 지난 후의 일인 것 같다. <오륜가>는 그의 나이 58세(1613)에 지어진 것이고, 그가 지어서 맏아들 磨에게 준 <薄薄田歌>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작품이 아닌가 추측된다.<sup>58)</sup> 여기에서 우리는 수서의 <훈민가> 창작이 향촌에서 사람을

54) 박선장, 앞의 책, p.369 참조.

55) 이기백, 《한국사신론》(일조각, 1976), p.275.

56) 이기백, 《우리 역사의 여러 모습》(일조각, 1996), p.158 참조.

57) 1) 어버이의 뜻을 어기지 말라 2) 우애를 저버리지 말라 3) 예의를 비방하고 인의를 저버리지 말라 4) 제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5) 임금이 능하지 못하다 하지 말라 6) 권세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말라 7) 손해가 될 벗을 가까지 말라 8) 깍지를 한 사람을 쫓지 말라 9) 장기와 바둑두는 일을 하지 말라 10) 나라에 공물을 바치기를 계을리하지 말라 박선장, 앞의 책, p.260 참조.

58) <薄薄田歌>의 창작연대는 명확하게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노래가 다른 형제들(次男 埼는 文科判校, 季子 瑞는 僉樞를 지냄)과 달리 농사를 짓던 수서의 장남 磨에게 준 글이라는 사실은 대략적인 연대고증이나마 가능하게 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그가 〈오륜가〉를 지은 시기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13년 팔월에 귀만서당이 완성되어 〈五倫歌〉를 지어 어린 선비들을 경계하였다. 국문으로 노래를 지어 동네의 학생들이 노래하며 자신을 경계하였다. 또 〈十勿箴〉을 지어 인심을 격려하였다. 어머니의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이 때 어머니의 나이는 구십오세였고 둘째 아들 한이 예안현감으로서 잔치를 베풀었다.<sup>59)</sup> 구월에 청성서원 봉안문을 지었다.

수서는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에 啓導를 위해 〈오륜가〉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평생 체득한 도덕의식을 표출해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오륜가〉를 지었다. 즉 평생을 지녀 왔던 修己·自警이 '우리'라는 공동체의 정신수양으로 확대되는 길목에 〈오륜가〉가 자리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제대로 '治人'해 낼 수 있는 '修己'된 인간을 길러내는 일을 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겼다 볼 수 있다.<sup>60)</sup>

그런데 위의 기록에 '오륜가를 지어 어린 선비들을 경계하였다.'는 대목이 있어 특기할 만하다. 삼송에게 교육 받는 자들은 인근 마을에서 몰려든 어린 선비(蒙士)<sup>61)</sup>였다. 여기에서 '蒙士'는 아직까지 배움의 길에 있는 '어린 선비'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바로 양반들의 어린 자제들을 가르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62)</sup> 어린 선비들을 가르침은 더 많은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것이기에 선비들에 대한 가르침은 향촌 교화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데, 수서가 오륜을 가르치는 대상을 〈蒙士〉에 둘으로써 그 대상에

다. 수서의 연보에 따르면 차남 한이 벼슬길에 나갈 때 수서공의 나이가 49세 였다. 〈薄薄田歌〉는 수서의 3남인 瑞까지 벼슬길에 나아가 아들들의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된 후에 성실한 자세로 농사에 임하는 瑞을 격려하기 위해 지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 때는 수서의 나이가 50이 넘었을 때였을 것이다. 宋政憲의 말대로 수서가 농사를 짓는 장자에게 마음이 걸려 〈薄薄田歌〉를 지었다면 이 추정은 더욱 확실해지겠지만 이는 아직도 검증을 요하는 부분이다. 송정현, 앞의 논문, p.644 참조.

59) 박선장, 앞의 책, p.80 참조.

60) 우용재, 〈전통사회의 교육(2):조선사회의 교육〉(서울대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 교육과학사, 1997), p.140.

61) 각주 41) 참조.

62) 조태흠, 〈훈민시조연구〉(부산대 박사논문, 1989), p.79.

일반 백성들까지 포함하는 일반적인 훈민가와 일정 정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훈민시조는 작자계층인 양반 사대부들이 백성들이나 그들의 자제들을 가르쳐 교화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작품이기에 작자인 양반 사대부들의 입장에서 교훈의 내용을 가장 강렬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데 편리한 명령법이 자주 선택된다. 이에 따라 훈민 시조는 종장의 30% 이상이 의문형으로 끝나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명령한다.<sup>63)</sup>

그러나 수서의 훈민시조는 그 대상이 백성보다는 〈蒙士〉로 한정되기에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설의와 감탄이 두드러진다. 그의 〈오륜가〉 가운데 이 특징을 보이는 시조의 종장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恩惠 하 망극호니 가풀줄을 몰나라/만일에 대의를 모르면 廉養이나 다  
르라/그려도 恭敬흘 줄 모르면 雕鳩 아니 인누냐/그려도 널꼽 구모 가자시니  
五倫이야 모르랴/백살도 못살 인생이 그러져려 엇데리

백성들보다는 양반가의 자제로 훈민의 대상이 한정되면서 명령이라는 직접적 수사(修辭)보다는 은근하게 뜻을 강조적으로 전달하는 설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듯하다. 그가 양반가 자제들의 교육에 신중을 기하고, 늘상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학적 특징이 비유의 기법이다. 수서가 지은 오륜가의 초·종장에는 비유의 기교가 자주 사용<sup>64)</sup>되고 있다. 비유는 既知의 것(보조관념)에 기대어 미지의 것(원관념)을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남에게 설명할 때 잘 취하는 방식이다. 양반가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스스로의 관습이 은유(비유)라는 표현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 요컨대, 향촌의 어린 선비들을 가르치는 수서의 교육자로서의 면모가 규범적인 오륜가의 틀에서 벗어나 더욱 특색있는 문학을 가능하게 하는 밀거름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생활 주변의 일상사를 매우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수서의 심미안은 그의 문학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요소이다. 곧 수서는 현실생활 중에서 획득한 경험과 감수성을 기초로 하여 세계에 대해 인식·표현하는 예술적 상상력을 가졌다라는 것이

63) 조태흠, 앞의 글, p.71 참조.

64) '한치만도 못한 풀'은 자녀요, '봄이슬 맞은 후에 잎이 넓고 줄기가 길어 밤낮으로 불어났다'고 한 것은 부모의 자애를 말함이다. 이상보, 앞의 글, p.370 참조.

다.<sup>65)</sup> 수서는 향촌생활에서 늘 가까이하게 되는 서민적 일상들을 문학으로 형상화하여 그들의 호흡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모심기를 보며〉(〈觀秧苗〉), 〈비가 오지 않음〉(〈五月十日不雨〉), 〈가을 파리〉(〈秋蠅〉)<sup>66)</sup> 등이 그 예일 것이다. 또, 〈천번 머리를 빗어도 가려운 생각이 있어서 쓴 시〉<sup>67)</sup>에는 빗질이 “머리의 때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분조차 유쾌하게 하는” 일상이지만 마음의 이치는 다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음을 가다듬어 티끌을 씻어내는” 일이 중요함을 깨닫는다. 그의 〈剪板銘〉<sup>68)</sup>에는 사람의 스스로를 신칙하고 다듬는 일을 ‘송판을 다듬을 때 먹줄을 훑겨 놓고 대패로 다듬는’ 정성에 비유하여 공경과 의리를 통해 올곧은 人道를 키워나가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수서는 일상적인 것에 대한 늘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체험하고 느낀 것들을 탁월한 예술적 상상력으로 문학적으로 재구성해 제자들에게 더욱 더 쉽게 전달하는 방법들을 찾고자 애썼다. 이는 다분히 수서가 문학가적 소양과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동시에 지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IV. 나오기

본고는 앞에서 수서가 일생동안 주로 어떠한 태도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그 태도와 의식이 향촌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폈다. 그를 통해 그의 〈오륜가〉의 창작 배경을 짐작해 보고자 했다. 바꾸어 말하면 수서가 修己를 우선하는 삶을 살면서도 향촌에서의 성실한 교육자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이상 논의된 부분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서 박선장은 어머니의 삼천지교와 엄격한 스승의 존재가 중요한 계기가 되어 평생동안 도덕적인 삶을 중시하고 그를 실천하였다. 또, 그는 평생동안 《심경》과 《대학》등의 경서를 지속적으로 탐구했고, 그에 대한 느낌을

65) 유협, 《문심조룡》(최동호 역편, 민음사, 1994), p.337 참조.

66) 박선장, 앞의 책, pp.102~109.

67) 박선장, 앞의 책, pp.210~211.

68) 박선장, 앞의 책, pp.263~264 참조.

시로 표현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그의 평생을 '엄숙한 도덕성의 고수, 修己 우선주의'로 규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둘째, 수서는 오래도록 퇴계문집을 탐독하고, 퇴계의 문인인 그의 스승 三松·삼송의 스승인 朴囂臯를 통해 퇴계 학풍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퇴계를 私淑했다. 이를 통해 퇴계의 출처관을 이어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수서는 벼슬살이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면서 향촌에서의 수학에만 전념하게 된다.

셋째, 평생을 지녀온 수기적 태도와 그를 통한 깨달음은 수서가 벼슬길에 나아가는 시기를 시발로 해서 '향촌 선비에 대한 가르침'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이는 서원의 洞主로 활약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니게 되는 지도자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폐해져 가는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책임의식 때문이기도 하다. 또 수서가 보이는 '수기'에서 '치인'으로의 자연스러운 전이는 흔히 사대부들의 일반적 성격으로 규정되는 在朝와 在野의 양면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수서는 스스로 갈고 닦은 학문을 후진 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소화해 자연스런 가르침으로 연계해 내는 교육자적 면모를 가졌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징이 〈오륜가〉에서 명령을 통한 일방적 전달보다는 설의나 감탄 등을 통한 은근한 전달을 피하고, 既知의 것에 기대어 미지의 것을 전달하는 교육자로서의 관습이 비유의 多用이라는 특징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자적 면모로 인해 수서의 문학은 규범적인 오류가의 틀에서 벗어나 더욱 특색있게 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이 그의 문학적 잠수성과 글쓰기의 치열함에 대한 고찰이다.<sup>69)</sup> 향촌의 교육자로서의 면모와 특색있는 문학가로서

69) 수서는 매우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녔다 할 수 있다. 12세 때에 남선생이 '烟(煙)'과 '霜(霜)'자로써 聯句를 지으라 하니 그는 "연기는 벽촌 두어집에서 피어오르고(烟生僻村只數家) 서리가 아무리 내려도 언덕길은 그대로이다(霜力無爲岸自空)"라 지었다. 삼송이 이를 기특히 여겼고, 삼송의 스승인 朴囂臯 또한 "기이하다. 기상이 빛고 말의 뜻이 맑고 원대하니 반드시 훗날에 반드시 발전할 것이다."라 칭찬하였다 한다. 〈수서선생연보〉 박선장, 앞의 책, p.59. 뿐만 아니라 13세에 벌써 〈指佞草〉라는 시를 지었다. 그의 타고난 문학적 능력은 그의 스승인 남옹오의 가르침에 의해 더욱 같고 다듬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수서가 지

의 면모가 그의 생애를 되짚는데 빼 수 없는 두 요소이고 보면 이에 대한 연구는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는다.

---

은 삼송의 제문에 “그는 감정과 성질을 다스렸으며 일찍부터 시쓰는 데 힘써서 문장이 천연스러워 다시 다품을 필요가 없었고, 마치 봄누에가 고치를 짓는 것 같았다.” 는 기록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祭外舅南三松文〉, 박선장, 앞의 책, p.290~292. 그의 문학성은 1603년~1605년에 이르면 거의 그의 문학적 전성기를 이룬다고 할만큼 많이 쏟아지게 된다. 또 그 상상력의 범위도 제한적이지 않고 많은 영역에 걸쳐 다양해지는 것이다. 이는 그의 여유있는 향촌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성은 글쓰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그를 시로 나타낸 것이 〈作詩苦〉, 〈作詩樂〉이다.